

“호남권에 지역 예술원 설립 추진”

한국예총 조강훈 신임회장

순천 출신...조선대 미대 졸업
“예술인 소득 보장·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소통 강화 노력할 것”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등 남도는 예향의 고장입니다. 오늘의 예향이 있기까지 고향을 지키며 예술의 토양을 일구는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예술원이 있어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어 소외돼 있는 편이지요. 향후 그런 점을 고려해 광주, 전남, 전북 등 예술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은 ‘한국예술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문화 예술 분야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최근 한국예총 선거에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조강훈 화가(63)가 당선됐다. 임기는 4년.

순천 출신으로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조 신임 회장 당선은 남도 출신으로는 하철경 회장 이후 처음이다. 선거는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실시됐다.

지난 1961년 설립된 한국예총은 문화 교류 촉진, 예술인 권익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등 10개 회원 협회와 사·도 172개 연합회 및 지회를 두고 있다.

신임 조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예술인 플랫폼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회원을 가진 예총이 국내 최고의 예술인 단체를 넘어 글로벌 예술문화의 허브이자 최고의 예술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일에 앞장서 한국예총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예총에서 탈피해 광역연합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소통은 중앙의 10개 이사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는 “광주예총 등 지역 예총 등과 수평선상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금까지는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함께 한다’는 모토를 두고 같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회장으로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예술인센터 문제와 예총의 누적된 부채 해결을 꼽았다.

조 회장은 “두 현안의 시급한 대책부터 마련할 것”이라며 “행복예총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센터 전문 경영 컨설팅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해 이사회와 공동운영 방안 및 대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지회가 더 풍성하고 알차게 꾸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예술단체” 등록 추진, 지역거점 예술문화 특성화사업의 지자체와 협업 등이 그러한 사례다.

해외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K컬처를 매개로 한 예술교류, 교육도 펼칠 예정이다. 국내의 청년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외국 청년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 교육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조 회장 취임식은 오는 3월말께 또는 4월 초 예정이다.

조선대 미대와 소피아 국립 예술대학교 파인아트마스터디그리(MFA)를 졸업한 조 회장은 조선대 외래교수, 경기대 외래교수, 중국 정주대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아트광주 2014 조직위원장, 한국미협 경기지회 지회장 및 전국지회장단협의회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 현대미술 대상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개인전 13회를 비롯해 KIAF, SOAF, 서울 오픈아트페어,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 300여 회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겨울에 찾아온 나뭇 국악기 탐정단’ 진행 장면.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뭇 제공〉

해금·생황...생소한 국악기 체험

나뭇, 광주 지역아동센터 8곳서 ‘국악기 탐정단’ 체험 성료

아이들이 ‘국악기 탐정단’이 돼 해금·생황 등 국악기를 관찰하고 연주까지 감상하는 체험 행사가 성료됐다.

이번 ‘국악기 탐정단’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뭇(대표 김현무)이 광주 소재 지역아동센터 여덟 곳에서 펼쳐졌으며 아이들이 낯선 국악기를 조사하는 탐정이 돼 ‘국악기 이름 맞추기’, ‘연주 방법과 재료에 따라 국악기 분류하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뭇이 자체 기획한 첫 사회환원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악예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국악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해금·황피리를 비롯해 생황

등이 연주됐다. 전통 민요 ‘아리랑’은 물론 ‘언제나 몇 번이라도’, ‘문어의 꿈’, ‘신호등’까지 국악기로 애니메이션, 가요 장르가 폭넓게 선사됐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국악기보드 세트, 국악 엽서 등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나뭇 김현무 대표는 “전통예술 국악을 활용한 차별화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져 향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뭇은 2017년 광주에서 결성해 ‘윤상원 열사 추모 음악회’, ‘무등산 할멈과 호랑 이야기’,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등 국악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나 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용기만 내면 당신도 연극배우

‘푸른연극마을’ 10~24일 시즌제 단원 모집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지역 대표극단 ‘푸른연극마을’이 2024 푸른연극마을 시즌제 단원을 모집한다.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 지원.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배우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성공연예술촌 공연 등에 출연하게 된다. 보성공연예술촌은 푸른연극마을이 2004년부터 (구)노동면사무소(거성리)에 마련한 연습장 겸 공연장이다.

푸른연극마을 제작 공연에 두 작품 이상 출연 가능한 배우면 지원할 수 있다. 프로무대 경력 3년 이상 및 공연예술장르 3작품 이상 출연 경력이 있어야 한다(만 18세 이상 지원). 1차 면접은 오는 26일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푸른연극마을-보성공연예술촌은 올 상반기 30회 이내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5·18을 레퍼토리로 한 작품, 아르크 지원사업 신나는



지난해 푸른연극마을이 선보인 공연 ‘안부’.

〈푸른연극마을 제공〉

예술여행, 서울 및 타 지역 공연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이랑금 대표는 “투자회보, 전·조대 연극 동아리 등을 필두로 예로부터 광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연극계를 선도하는 지역이었다”며 “그 위용을 다시금 빛낼 수 있는 패기와 역량 있는 신인 배우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손에 손 잡아~ ACC 예술을 즐기자

문화전당 로고송 공개...이달부터 경유 시내버스터도 감상

“문화를 만나자/ 예술을 즐기자/ 아시아의 모든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손에 손 잡아/ 함께하는 문화 ACC/ 손에 손 잡아 ACC/ 함께하는 예술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공개한 로고송 ‘손에 손잡아(Hands to Hands)’는 아시아의 화합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가사는 ACC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공개된 로고송은 2025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제작된 것으로 경쾌함과 반복성이 특징이다. 가사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들었으며 원곡 외에도 클래식, 국악 버전 등 다양한 음원으로 만들었다.

로고송은 개관, 폐관 시간에 맞춰 일일 2회 송출되고 있으며 ACC 대표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3월부터는 ACC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에서도 들을 수 있다.

교류홍보과 설보영 주무관은 “이번 로고송은 젊은층에게 ACC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쉽고 경쾌한 가사와 음악은 시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고송은 공공누리과 ACC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ACC는 향후 로고송을 활용해 홍보 영상 제작, 눈 켈린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대산문화재단, 5월까지 공모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2024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번역지원 부문 신청자는 아직 해당 언어권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번역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대산문학상 수상작 혹은 해외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문학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연구지원 부문은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교수, 학생, 번역가,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출판지원 부문은 한국문학 작품 출간을 희망하는 해외 출판사가 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전 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문화재단 홈페이지(www.daesan.or.kr)에 안내돼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